

#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40 증권자 투자신탁 [채권혼합] [채권혼합형 펀드]

(운용기간 : 2018년10월26일 ~ 2019년1월25일)

○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주)**

서울시 성동구 독성로1길 10(성수동1가)  
(전화 02-6308-0500, <http://www.trustonasset.com>)

## 펀드 운용경과 및 운용계획

고객 여러분, 매서운 추위와 미세먼지가 교대로 건강을 위협하는 요즘 아시아 주식시장도 암울한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2018년 내내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우려가 아시아 주식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서운 겨울 한파의 온도도 계속 낮아질 수만은 없듯이 아시아 주식시장에도 긍정적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구조적 성장주들은 최근의 국제정치적 이벤트에 따라 장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대두되며 상대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 경감은 포트폴리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도 장기 성장의 유효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겠습니다.

### 1. 운용개요

지난 3개월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40 채권혼합 펀드는 2.05%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비교지수(KIS 국공채시장지수 60% + MSCI AC Asia USD Index(KRW) 35% + CALL 5%) 수익률 대비 0.26%p를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 2. 운용실적

#### [주식]

일본 주식시장은 연중 아시아 시장 내에서 상대적 안정성을 보여왔으나 18년 4/4분기 동안 Fed(연방준비제도)의 긴축기조 유지에 대한 우려, 엔화 강세에 대한 우려 등이 가중되며 가장 큰 하락폭 (Nikkei 225 -17%)을 보였습니다. 동기간 미-중 무역갈등의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중국 (상해 -11.6%, 심천 -13.8%, 홍콩H -8.1%)과 중국의 영향력이 큰 한국 (KOSPI -12.9%), 대만 (TAIEX -11.6%)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3.6%), 말레이시아 (-5.7%), 필리핀 (+2.6%), 인도 (-0.4%) 등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펀드는 국가별로 보면 일본, 중국, 대만 시장을 벤치마크 비중 대비 높게 가져가고 있으며, 섹터별로 살펴보면 국가별 발전 단계 및 글로벌 공급망에 따라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IT, 산업재, 경기민감소비재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유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지수 하락이 비교지수 대비 컸던 점이 펀드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교지수 대비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 [채권]

지난 3개월(2018.10.26 ~ 2019.1.25) 동안 미-중 무역분쟁 지속, 대내외 경기 둔화 우려, 유로 지역 정치 불확실성, 글로벌 증시 및 국제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채권시장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그동안 조정을 지속하였던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이면서 채권시장은 강세 일부를 되돌리며 마감하였습니다. 분기 전체적으로는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장단기 금리 차이는 축소되었습니다. 크레딧 채권은 전 분기 대비 소폭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견조하던 일본 시장의 큰 폭 하락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견조한 모습

보유비중 높은 국가들의 부진으로 비교지수 대비 성과 부진

채권시장 강세 장단기 금리차 축소



**증시 하락  
금리 하락**

분기 초 국내 및 아시아 증시 급락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강세 전환하였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강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상 하원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분하였으며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아시아 증시가 하락함에 따라 국내 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브렉시트 우려  
국제유가 하락  
금리 하락**

분기 중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 사임으로 하드 브렉시트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강세를 지속하였습니다.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두 명의 소수의견이 있어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Fed(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완화된 발언이 이어졌으며, 화웨이 CFO가 체포됨에 따라 미-중 무역협상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강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주식시장 급락 후 급등  
상저 하고 흐름**

분기 말 국제 유가가 하락을 지속하고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연말 주식시장이 급락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금리는 하락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국고채 초장기물 발행 부담으로 추가 강세 시도가 막혔고, 파월 의장의 도비쉬한(통화 완화 선호) 발언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와 국제유가가 상승 반전함에 따라 금리도 상승 전환 마감하였습니다.

**국고 3년 기준  
17.7bp 하락**

결국 국내 채권금리는 2019년 1월 25일 현재 국고 3년 만기 기준 2018년 10월 25일 대비 17.7bp 하락한 1.81%로 마감하였습니다. 동 기간 중 장기채권의 상대적 강세로 국고채 3년과 10년의 금리 차이는 축소되었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국고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는 전 기간 대비 소폭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고채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  
안정적 이자수익**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이라는 국내 요인이 금리 하락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동 기간에는 전반적으로 무역분쟁 및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채권시장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변동성 장세 속에서 금리 상승 위험을 헛지하되, 전반적으로는 채권 듀레이션을 늘리는 대응이 유효한 기간이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 펀드는 국고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제고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3. 운용계획**

**[주식]**

**2018년 인도의 선방,  
중국 및 주변국의 부진**

2018년을 되돌아 보면, 국가별로는 인도 증시가 가장 양호하였습니다. 여전히 소비 관련 업종이 증시를 주도한 가운데 수년 간 부진했던 IT서비스 업종의 턴어라운드도 보탬이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인도중앙은행(RBI)장의 사임, 다가오는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에 상대적인 매력도까지 더하면 2019년 투자 우선 순위는 낮다고 판단합니다. 반면 중국에 가까운 국가일수록 18년 증시는 부진하였습니다. 일본도 잘 버티는 듯하였지만 결국 12월 하락폭을 감안하면 연간 수익률은 우리나라 증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 업종이 연중 가장 부진하였습니다. 소재 및 금융 업종은 아세안 국가 및 인도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부담은  
낮아질 가능성**

2019년 아시아 국가들에게 한 가지 위안은 적어도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낮아진 유가 및 기타 소비자 장바구니 가격 추이를 볼 때 그렇습니다. 악화된 대외 환경으로 인해 기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국가는 없고, 오히려 몇몇 국가의 경우 인하 소식이 들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인도나 말레이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기대되고 있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인하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략



적 이점이 발생하는 구간일 것으로 봅니다.

**글로벌 경기 및 부채 등  
리스크 요인 상존**

그 외에는 악화된 글로벌 경기, 부채 문제 등 나쁜 소식들뿐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악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냐이고, 증시가 항상 경제지표 대비해서 선행성이 있었음을 감안하면서 2019년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지표 대비 증시의  
선행성 유념할 필요**

20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는 약 1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부터 시작된 사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전이되었고, 홍콩 달러 페그제(고정환율제도) 포기를 노린 투기성 세력 출현도 있고,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의 자금 유출입 통제가 1998년 9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주식시장의 하락을 2018년 2월부터로 규정하면 이제 거의 1년을 채워가고 있는 셈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증시도 1998년 9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사건들과 KOSPI레벨을 비교해 보면

1. 1998년 5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 : KOSPI 420 pts
2. 1998년 6월 금융기관 구조개혁 방안 발표 : KOSPI 300 pts
3. 1998년 10월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 : KOSPI 350 pts
4. 1999년 2월 한국신용등급 투자적격으로 상향 : KOSPI 580 pts
5. 1999년 4월 대우그룹 구조조정 계획 발표 : KOSPI 750 pts

역시 희망이 구체화될 만한 이벤트 발생 이전 주가는 선행적으로 반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별 부실부채 이슈는  
지속적으로 유의**

남보다 미리 희망적인 전망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역시 부실부채 문제입니다. 수출이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높고 가계 부채 문제가 있는 국가, 즉 중국, 한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기타 국가 대비 조금 더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부양 정책 기대**

각 국가별로 2019년 투자에 참고해야 할 점들을 짚어 보았습니다.

중국에 몇 가지 새로운 부양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 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부가가치세율 인하, 1-2선 도시 부동산 규제 일부 완화 등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대만, 한국은 무역분쟁의  
실물 경제 영향력 지속  
감안할 필요**

대만과 한국은 미-중 무역 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2017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이 총 5,120억 달러인데, 이 중 290억 달러는 한국에서, 240억 달러는 대만에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이는 각 국가의 GDP 대비 1.9%, 4.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무역 분쟁의 여파가 아직 기업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기 힘든 만큼 투자에 있어 보수적인 실적 추정을 통해 밸류에이션을 가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도 18년 대비  
보수적 관점**

인도의 19년 성장률은 18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8년 GST(상품·용역 소비세) 도입 및 화폐개혁 조치로 인한 반사효과가 있었음을 상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 서민금융기관(Non-Bank Finance Companies, Housing Finance Companies)의 최근 부도로 인한 대출 태도 냉각도 우려되는 요인입니다. 2분기 예정된 하원 선거 전 투자심리는 관망세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채권]**



**경기 둔화 우려  
안화적 통화정책  
비우호적 수급**

펀더멘털 상으로 보면,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경기 둔화까지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던 미국도 late cycle 국면에 진입하면서 점차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 측면에서는 미국이 작년에는 기준금리를 매 분기 인상하였지만 올해는 추가 인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Fed(연방준비제도)의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도 감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CB(유럽중앙은행)와 BOJ(일본중앙은행)가 긴축으로 돌아서기에는 아직 상당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 역시 올해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수급은 국고채 초장기물 공급이 증가한 가운데 보험사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채권에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고채 중심의  
안정적 운용 계획**

이에 따라 채권시장은 제한적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당분간 국고채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운용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고채 금리 수준이 기준금리에 가깝게 낮아지게 되면 점차 국고채 대비 높은 보유이원(만기 보유시 이자 발생)을 가진 우량 크레딧 채권에 대한 매수를 고려해 봐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운용은 보수적인 듀레이션 및 만기 전략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상대적 금리 매력이 있는 우량 크레딧 채권 편입을 통해 이자수익 제고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기간 트러스톤자산운용을 믿고 아시아장기성장주40 채권혼합 펀드에 투자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CIO 황성택  
멀티에셋부문 CIO 이윤표  
주식운용1본부 차장 이태하  
채권운용본부 1팀장 문성호  
채권운용본부 1팀 부장 진재식 拜上





## 목 차

1. 펀드의 개요
2. 수익률 현황
3. 자산현황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5. 비용현황
6. 투자자산매매내역
7.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8. 공지사항

〈참고 - 펀드용어정리〉

# 1. 펀드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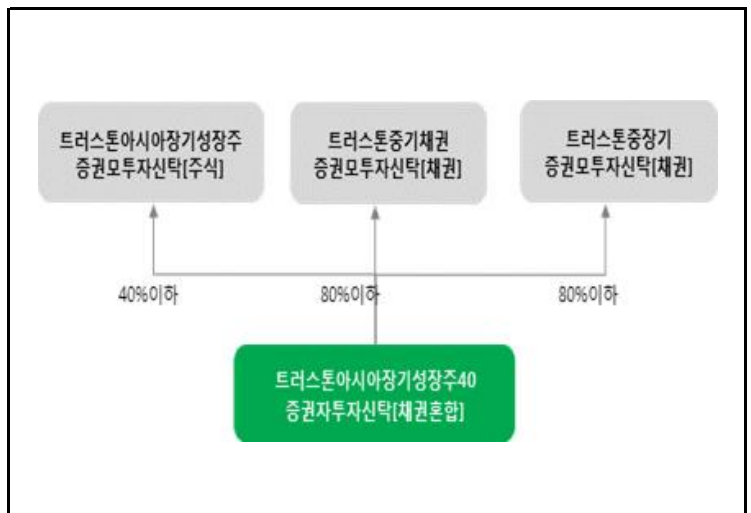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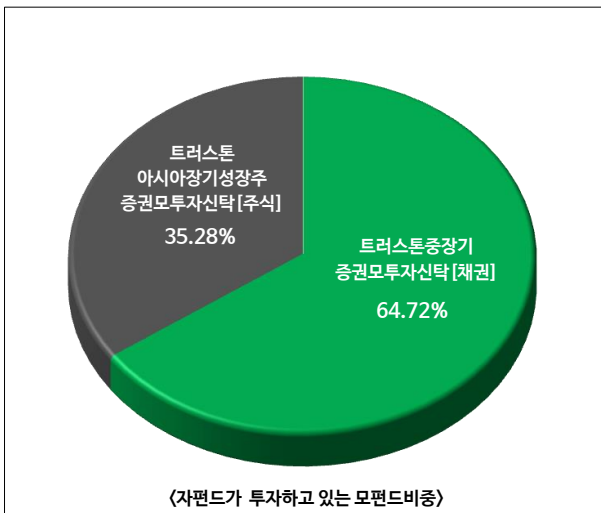
## ■ 기본정보

적용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투자위험등급	
트러스트아시아장기성장주4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AZ808	4등급 (보통 위험)	
S	B5370		
S-P	AZ811		
펀드의 종류	채권혼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최초설정일	2015.10.26
운용기간	2018.10.26 ~ 2019.01.25	존속기간	별도의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트러스트자산운용(주)	펀드재산보관회사	KEB하나은행
판매회사 <sup>주)</sup>	www.trustonasset.com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펀드에 40%이하 투자하고, 채권 모펀드에 80%이하로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 In-house research(회사 내의 리서치 조직)를 바탕으로 철저한 Bottom-up 분석(개별기업 분석)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구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종목을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주)판매회사: 자세한 사항은 트러스트자산운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펀드 구성



※ 자펀드 자산현황을 100으로 가정하였을때 각 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 재산현황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트러스트아시아장기성장주4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자산 총액 (A)	64	65	0.50
	부채 총액 (B)	0	0	-85.25
	순자산총액 (C=A-B)	64	65	0.50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62	62	-0.64
	기준가격 <sup>주)</sup> (E=C/D×1000)	1,037.10	1,048.95	2.05
종류(Class) 별 기준가격 현황				
S	기준가격	1,025.11	1,044.14	1.86
S-P	기준가격	1,026.11	1,045.28	1.87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2. 수익률 현황

### ■ 기간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트러스트아시아장기성장주4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05	-3.70	-2.59	-4.46
(비교지수 대비 성과)	(-0.26)	(-2.93)	(-3.22)	(-3.08)
종류(Class)별 현황				
S	1.86	-4.09	-3.17	-5.21
(비교지수 대비 성과)	(-0.46)	(-3.32)	(-3.80)	(-3.83)
S-P	1.87	-4.06	-3.13	-5.16
(비교지수 대비 성과)	(-0.45)	(-3.29)	(-3.76)	(-3.78)
비교지수(벤치마크)	2.31	-0.77	0.63	-1.38

주) 비교지수(벤치마크) : KIS 국공채시장지수 60% + MSCI AC Asia USD Index(KRW) 35% + CALL 5%

※ 상기의 수익률은 과거의 운용실적으로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당 펀드는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으로 종류별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트러스트아시아장기성장주4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4.46	6.64	19.67	-
(비교지수 대비 성과)	(-3.08)	(0.67)	(7.53)	-
종류(Class)별 현황				
S	-5.21	4.99	17.75	-
(비교지수 대비 성과)	(-3.83)	(-0.97)	(5.62)	-
S-P	-5.16	5.09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3.78)	(-0.87)	-	-
비교지수(벤치마크)	-1.38	5.97	12.14	-

주) 비교지수(벤치마크) : KIS 국공채시장지수 60% + MSCI AC Asia USD Index(KRW) 35% + CALL 5%

※ 상기의 수익률은 과거의 운용실적으로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당 펀드는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으로 종류별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4	0	0	0	0	0	0	0	0	0	0	-4
당기	1	0	0	0	0	0	0	0	0	0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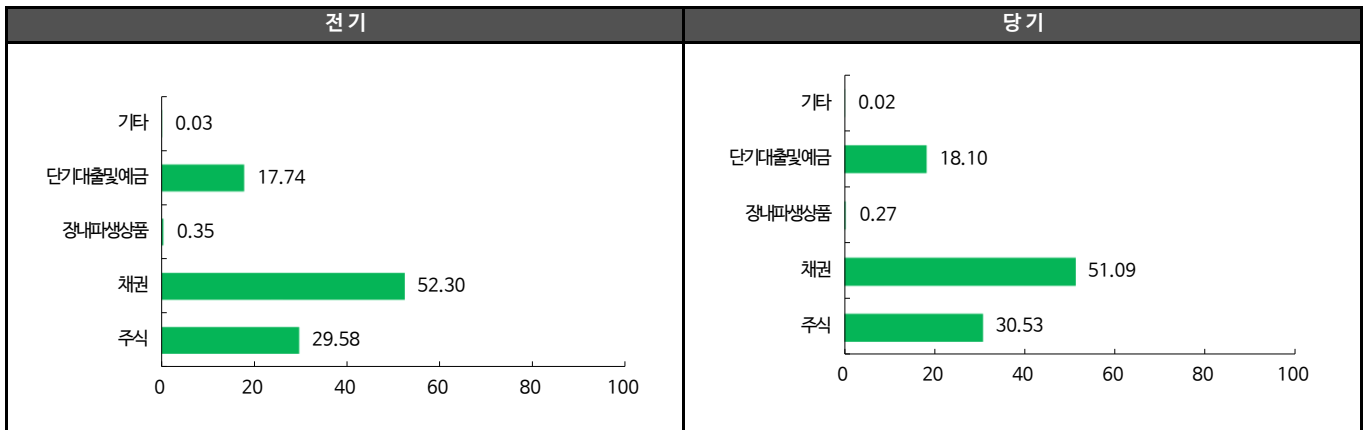
### 3. 자산현황

#### ■ 자산구성현황 (거래국가 기준)

(단위 :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장내			
CNY (165.90)	1 (2.25)	0 (0.00)	0 (0.00)	0 (0.36)	0 (0.00)	2 (2.61)
HKD (142.90)	2 (3.50)	0 (0.00)	0 (0.00)	0 (0.00)	0 (0.00)	2 (3.50)
IDR (0.08)	0 (0.55)	0 (0.00)	0 (0.00)	0 (0.00)	0 (0.00)	0 (0.55)
INR (15.78)	1 (1.79)	0 (0.00)	0 (0.00)	0 (0.00)	0 (0.00)	1 (1.79)
JPY (10.21)	9 (13.59)	0 (0.00)	0 (0.00)	0 (0.01)	0 (0.00)	9 (13.60)
THB (35.41)	0 (0.10)	0 (0.00)	0 (0.00)	0 (0.00)	0 (0.00)	0 (0.10)
TWD (36.39)	2 (3.28)	0 (0.00)	0 (0.00)	0 (0.00)	0 (0.00)	2 (3.28)
USD (1121.30)	2 (2.69)	0 (0.00)	0 (0.00)	0 (0.22)	0 (0.00)	2 (2.91)
KRW (1.00)	2 (2.79)	33 (51.09)	0 (0.27)	11 (17.50)	0 (0.02)	46 (71.67)
합계	20	33	0	12	0	65

\* ( ) : 구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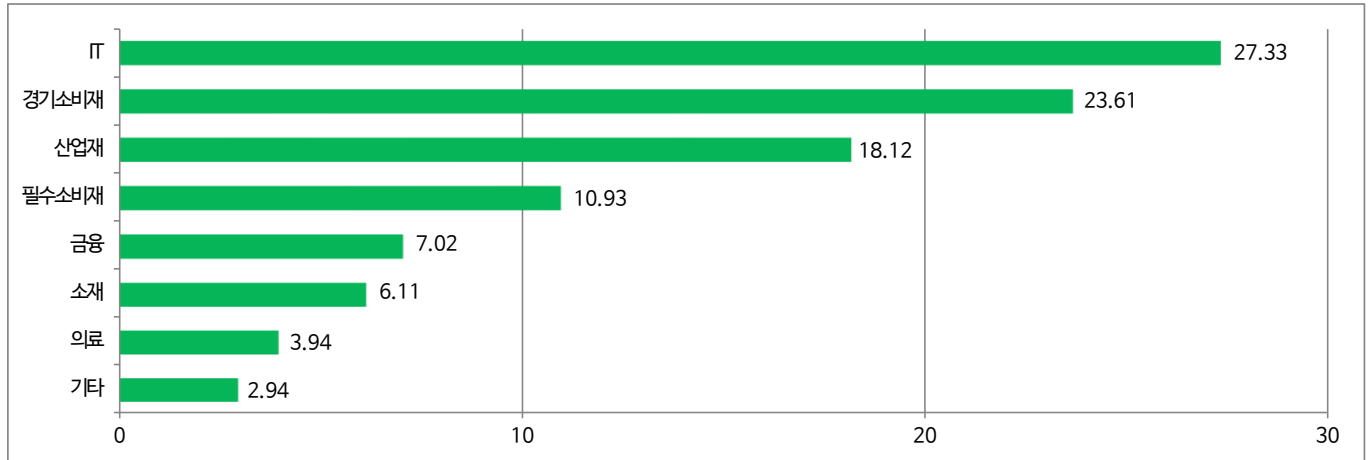


주) 위의 결과는 해당 자펀드의 실제 자산보유 내역을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펀드의 자산구성 내역을 해당 자펀드가 각 모펀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안분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익증권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와 비교하여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식 업종별 투자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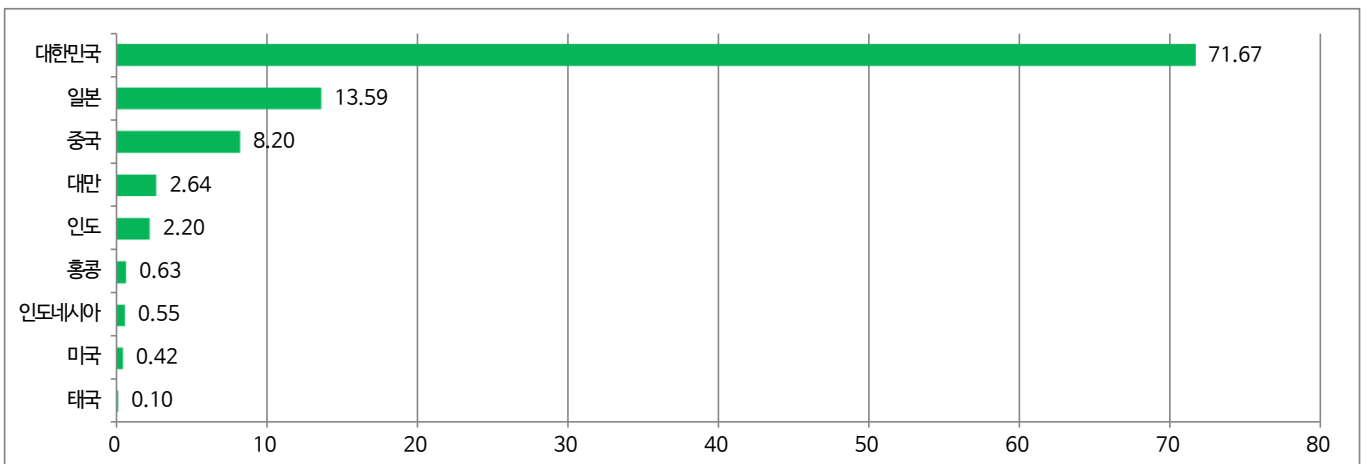
순위	업종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IT	27.33	6	소재	6.11
2	경기소비재	23.61	7	의료	3.94
3	산업재	18.12	8	기타	2.94
4	필수소비재	10.93			
5	금융	7.02			



## ■ 국가별 투자비중 (본점 소재지 기준)

(단위: %)

순위	국가명	비중	순위	국가명	비중
1	대한민국	71.67	6	홍콩	0.63
2	일본	13.59	7	인도네시아	0.55
3	중국	8.20	8	미국	0.42
4	대만	2.64	9	태국	0.10
5	인도	2.20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순위	구분	종목명	비중	순위	구분	종목명	비중
1	단기상품	은대(하나은행)	11.62	6	단기상품	REPO매수(20190125)	5.16
2	채권	국고02250-2309(18-6)	9.70	7	채권	국고채권02000-2112(18-9)	4.34
3	채권	국고02625-2806(18-4)	9.08	8	채권	통안02060-1912-02	4.32
4	채권	한국석유공사8	8.65	9	채권	대한주택공사256	3.07
5	채권	국고02000-2209(17-4)	6.53	10	채권	국고03000-2409(14-5)	2.75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채권

(단위 :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2250-2309(18-6)	6	6	대한민국	KRW	2018-09-10	2023-09-10		N/A	9.70
국고02625-2806(18-4)	6	6	대한민국	KRW	2018-06-10	2028-06-10		N/A	9.08
한국석유공사8	6	6	대한민국	KRW	2015-08-26	2020-08-26		AAA	8.65
국고02000-2209(17-4)	4	4	대한민국	KRW	2017-09-10	2022-09-10		N/A	6.53
국고채권02000-2112(18-9)	3	3	대한민국	KRW	2018-12-10	2021-12-10		N/A	4.34
통안02060-1912-02	3	3	대한민국	KRW	2017-12-02	2019-12-02		N/A	4.32
대한주택공사256	2	2	대한민국	KRW	2009-06-18	2024-06-18		AAA	3.07
국고03000-2409(14-5)	2	2	대한민국	KRW	2014-09-10	2024-09-10		N/A	2.75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장내파생상품

(단위 : 계약, 백만원)

종목	매수/매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비고
10년국채 F 201903	매도	0	2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개별계약등의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KEB하나은행	2015-10-26	8	1.38		대한민국	KRW
REPO매수	신영증권	2019-01-25	3	1.83		대한민국	KRW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억원)

성명	직위	출생 년도	운용중인 다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이태하	차장	1981년	5	995	-	-	2111000647
문성호	부장	1977년	22	4,417	-	-	2109001217
진재식	부장	1979년	23	13,485	1	1,026	2101011621

주)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구분	기간	운용전문인력
주식	2015.2.22 - 2018.10.10	안홍익
	2018.10.11 - 현재	이태하
채권	2017.07.27 - 2018.02.28	전춘봉
	2017.07.27 - 현재	진재식

주) 2019. 1월 기준일 현재 기준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5. 비용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트러스트아시아장기성장주4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0	0.00	0	0.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00	0	0.00	
	기타비용**	0	0.01	0	0.00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1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1	0	0.01
	증권거래세	0	0.01	0	0.00	
	S	자산운용사	0	0.13	0	0.13
판매회사		0	0.06	0	0.06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20	0	0.20	
기타비용**		0	0.01	0	0.00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1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1	0	0.01
증권거래세		0	0.01	0	0.00	
S-P		자산운용사	0	0.13	0	0.13
	판매회사	0	0.05	0	0.05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18	0	0.18	
	기타비용**	0	0.01	0	0.01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1	0	0.01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1	0	0.01
	증권거래세	0	0.01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총보수,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구분	해당 펀드		상위펀드 비용 합산	
		총보수·비용비율	중개수수료 비율	합성총보수·비용비율	매매·중개수수료 비율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전기	0.0000	0.0014	0.0349	0.0581
	당기	0.0000	0.0013	0.0280	0.0482
종류(Class)별 현황					
S	전기	0.7799	0.0000	0.8168	0.0596
	당기	0.7799	0.0000	0.8079	0.0497
S-P	전기	0.7299	0.0000	0.7643	0.0577
	당기	0.7299	0.0000	0.7581	0.0479

주1)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주3)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 6. 투자자산 매매내역

###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단위 :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주)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152,078	1,295	127,838	1,144	7.36	29.20

주)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금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격으로 나눈 비율

###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단위 : %)

2018년04월26일 ~ 2018년07월25일	2018년07월26일 ~ 2018년10월25일	2018년10월26일 ~ 2019년01월25일
31.49	8.76	7.36

## 7.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동 펀드에 고유재산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 8. 공지사항

\* 고객님의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자산운용회사인 트러스톤자산운용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트러스톤자산운용(주)  
금융투자협회

<http://www.trustonasset.com>  
<http://dis.kofia.or.kr>

## 참 고 :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에서 펀드에 부여하는 고유의 코드이며, 이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설정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 판매,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판매회사에서 펀드에 가입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실제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위탁자가 되어 펀드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신탁업자란 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자금은 신탁업자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업자의 위탁을 받아 펀드기준가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판매회사	판매회사란 펀드의 판매, 환매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수수료 비율	해당 운용기간 중 펀드에서 지출되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등의 매매수수료 총액을 펀드의 순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